



보도시점 2026. 3. 15.(일) 17:00
< 3.16.(월) 조간 >

배포 2026. 3. 15.(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글로벌 에너지·자원 공급망 안정화 방안 모색

- 김정관 장관,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 장관회의 (3.14(토)~15(일), 일본 도쿄) 참석 -
- 미국, 호주, 베트남, 뉴질랜드 등 역내 국가들과 안정적 공급망 구축 방안 논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14(토)부터 3.15(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 장관회의 및 비즈니스 포럼(Indo-Pacific Energy Security Ministerial and Business Forum, IPEM)」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미국 국가에너지위원회(NEDC*)가 공동 개최하는 첫 회의로,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국 17개국 정부 고위급*과 에너지·인프라·산업·금융 분야 기업인들이 함께 참여하였고, 1일 차는 비즈니스 포럼, 2일 차는 장관 회의로 구성되었다.

* **National Energy Dominance Council**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된 **대통령 직속 에너지 정책 컨트롤 타워**(위원장: 내무부 장관, 부위원장: 에너지부 장관)

*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약 17개국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 변동성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은 에너지 수요 증가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가 동시에 중요한 과제로 부각 되고 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은 핵심광물·에너지 소비국과 제조업 중심국이 집중*되어 있어 국가 간 상호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하다.

* 인도-태평양 지역은 세계 에너지 수요 증가의 약 60% 차지, 해상 에너지 수송 의존도(호르무즈 해협, 말라카 해협) 60%, 세계 석유 소비의 약 45~50% 차지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정부, 기업인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 투자 및 파트너십 확대 등 다양한 사안을 나누었다.

김 장관은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을 공유하며, 원유·핵심광물 등의 불안정한(Unstable) 수송로 문제점,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에 취약한 불확실한(Uncertain) 공급망 구조, AI와 첨단 제조산업의 성장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Unpredictable)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을 현재 글로벌 에너지와 자원 공급망이 직면한 거대한 3가지 도전 과제로 정의하였다.

김 장관은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공급의 예측 불가능성을 줄이고, IEA 국제 공동 비축유 방출처럼 국제 원유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위기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한편, 장관회의 행사 중 하나로 진행된 투자 협약식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정부 간 핵심광물 프레임워크와 기업 간 LNG 구매계약이 체결되었다.

* 양국 정부 간 핵심광물 협력 MOU로, 공동 프로젝트 발굴 및 투자 촉진, 비축, 재자원화, 지질자원 조사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 방안 모색

** 韓한화에너지로스페이스-美Venture Global 간 LNG 도입계약 체결 (20년간 150만톤/연)

김 장관은 이번 행사에 대해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가 첨단기술 산업과 산업·자원 안보에 필수적인 만큼,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라고 평가하고, “최근 중동 상황으로 에너지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을 상기시키며,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도 양국의 천연가스 분야 협력도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참석한 장관들은 이틀 간의 논의를 통해 에너지 안보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역내 에너지 수급 안정과 협력 의지를 담은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 장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김 장관은 미국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호주 매들린 킹 자원·북호주 장관, 뉴질랜드 사이먼 와츠 에너지 장관, 베트남 응우옌 황 룡 산업무역부 차관 등과 양자 회담을 갖고 중동 상황에 대한 각국의 원유 수급 현황,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한 각국의 노력을 공유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

담당 부서	자원산업정책관 자원안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민영 (044-203-5240)
		담당자	사무관	신승일 (044-203-5253)
	가스산업과	책임자	과 장	한주현 (044-203-5201)
		담당자	사무관	윤철희 (044-203-5232)
	광물자원팀	책임자	팀 장	김 호 (044-203-5259)
		담당자	사무관	김지훈 (044-203-5258)

붙임1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 장관회의 개요

□ 개요

○ (행사명)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 장관회의 및 비즈니스 포럼

* Indo-Pacific Energy Security Ministerial Meeting and Business Forum

○ (일시·장소) '26. 3. 14(토) ~ 15(일), 일본 도쿄

○ (참석자) 韓 산업통상부 장관, 美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日 경산업성 장관 등 주요국 장관 및 기업 CEO 등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뉴질랜드,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동티모르, 팔라우, 마이크로네시아, 마셜제도 등 17개국 장관급 인사 참석

○ (주요 일정) 3.14(토) 비즈니스 포럼, 3.15(일) 장관회의 등

○ (주제) ▲인도-태평양 지역 성장과 안보를 위한 안정적인 에너지, ▲에너지 공급망·해상·사이버 안보 강화, ▲에너지 무역과 투자 등

□ 상세일정

3.14 (토)	09:00~09:20	• 개회식
	09:20~12:00	• 전체 세션 - 인도-태평양 지역 성장과 안보를 위한 안정적인 에너지, 에너지 공급망·해상·사이버 안보 강화, 에너지 무역과 투자 등
	12:00~13:30	• 오찬 및 美 행정부 각료 발표
	13:30~15:30	• 분야별 세션 - 전통에너지, 민간 원전, 금융과 투자 등
	15:30-15:45	• 휴식
	15:45-16:45	• 인도-태평양 지역 에너지 안보 프로젝트 현황
	16:45-17:00	• 폐회식
3.15 (일)	09:00-09:20	• 개회식
	09:20-10:30	• 장관회의
	10:30-10:40	• 휴식
	10:40-11:10	• 투자 협약식
	11:30-12:30	• 오찬
	13:00-15:30	• (비공개) 장관회의 및 실무회의
	15:30-15:45	• 휴식
	15:45-16:35	• 장관회의
16:35-17:00	• 폐회식	

**Energy Security for Indo-Pacific Endurance,
a Global Growth Center of the 21st Century**

We, the ministers of [participating countries in alphabetical order], met in Tokyo, Japan, on March 14–15, 2026, to hold the historic Indo-Pacific Energy Security Ministerial and Business Forum. The forum was co-hosted by the Chair and Vice Chair of the U.S. National Energy Dominance Council, Secretary of the Interior Doug Burgum, Secretary of Energy Chris Wright, and Japanese Minister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Akazawa Ryosei. In light of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we affirm our shared determination to work collectively to ensure stable and secure energy supply in the Indo-Pacific region.

To this end, we focused on three key themes: reliable energy for Indo-Pacific growth and security; securing energy supply chains, infrastructure and maritime routes; and enabling trade and investment. To support these goals, Ministers affirm the value of:

- The necessity of reliable, affordable, secure and dispatchable energy from all sources depending on each country's situation, in meeting the region's surging energy demand.
- Promoting quality as a key procurement mechanism to mitigate risk of operational liabilities.
- Protecting against rising cyber threats to the security of the energy grid, critical infrastructure, vehicles, and devices.
- Investment in comprehensive energy infrastructure that encompasses the entire energy supply chain from upstream development facilities to downstream equipment to support an affordable, reliable, and secure energy supply including baseload electricity.
- Continuing to supply affordable and reliable energy sources in the Indo-Pacific region, including through emergency response measures, to benefit both producers and consumer countries.
- While maintaining strong relations with current partners, expanding and diversifying energy suppliers and fuel types in order to strengthen energy security.
- Promoting transparent, long-term energy contracts that reduce market volatility.

As the global economy expands, so too does demand for energy driven by AI and electrification, we, as countries committed to a free and open Indo-Pacific, reaffirm our commitment to enhancing energy security in the region through the supply of abundant, accessible, reliable, affordable, secure and dispatchable energy.

We recognize that growing all sources of energy, ensuring energy access and infrastructure, and lowering energy costs for all are essential to our efforts to end poverty, better human lives, and further drive economic growth, security,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a global growth center of the 21st century. We welcome Pacific LNG exports, including from the United States and other established and emerging suppliers, that contribute to reliable, affordable and diversified energy supply in the Indo-Pacific region.

We note efforts by the World Bank, the Asian Development Bank (ADB) and other international finance institutions to expand financing for energy-related programs and technical assistance including for nuclear energy projects for interested countries aligned with IAEA standards on safety, security, regulatory frameworks, and non-proliferation safeguards and supporting developing countries in mobilizing finance, transferring technology and capacity building. In addition, interested countries intend to accelerate cooperation, especially in the field of nuclear energy, to pursue deployment of Small Modular Reactors (SMRs) and other advanced technologies.

We congratulate the series of tangible deals announced in Tokyo on this occasion and intend to make efforts to ensure that these deals result in reliable, accessible, and affordable energy supply and pave the way for future cooperation.